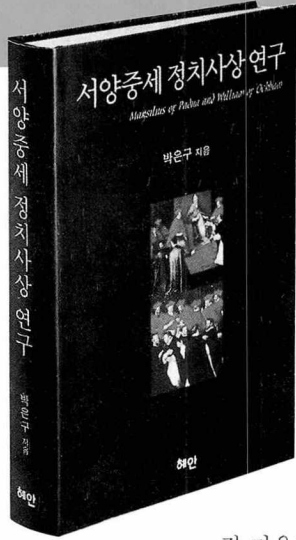


《서양중세 정치사상 연구》

근대정치이론 기반 님은 중세 정치사상의 계보학

박은구 지음
 해안/A5신/574면/28,000원

장준철 | 원광대 사학과 교수



한국의 서양중세사학계에 또 하나의 연구 결실이 맺어졌다. 숭실대 사학과 박은구 교수는 노작 《서양중세 정치사상 연구》를 출간함으로써 그의 연구생활을 중간 결산했다. 열악하고 불리한 여건에 처해 있는 한국 서양중세사학

계에 새 힘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소중한 연구 결과라 할 수 있다. 지은이는 논란도 많았고 다양한 이론과 논리가 제기됐던 중세의 정치사상을 일련의 흐름 속에서 맥을 짚어 가며 이해시키고자 했다.

마르실리우스와 오캄의 2인 구도

지은이는 반교황주의의 입장을 견지했던 마르실리우스 파두아와 변형된 병행주의 이론을 주장한 윌리엄 오캄의 정치사상을 큰 축으로 해 서양중세의 정치사상을 분석했다. 이 두 사상가는 13세기 초반에 황제 루드비히 4세 측에 가담해 아비뇽 교황 요한 22세에 맞서 투쟁했던 인생역정을 공유하고, 사상적으로는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며 인민주의자였다.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이들 사상이 중세적 한계를 넘어 근대적 정치 이론을 전조했다는 점에서 지은이의 집중적인 관심을 끌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마르실리우스는 세속 사회의 평화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가 교황과 교회의 지배로부터 해방돼 자율적이고 이성적인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는 반교황주의적인 자세를 지녔다. 그는 자유민의 공동체인 국가 안에서 비로소 충족된 삶이 성취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지은이는 이런 마르실리우스의 국가관과 정치권력이 주지주의적 인민주권론을 기초로 한다고 본다.

오캄은 교회정부와 세속정부가 각각 자율적으로 고유의 영역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회정부의 존재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것의 고유 권한을 존중했으나 교회정부와 교황의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지배권에는 동조하지 않았다. 오캄은 현세 정치 질서와 세속정부가 올바르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인민의 정치적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런 점에서 지은이는 오캄이 세속정부관에서는 인민주의적이며, 두 정부의 관계에서는 변형된 병행주의 입장을 지녔다고 지적했다.

중세 정치의식의 유형 고찰해

지은이는 이들 두 정치 사상가의 이론과 함께 서양중세 정부론을 비롯한 중세 정치의식의 유형을 고찰했다. 이는 아마도 마르실리우스와 오캄의 분석에서는 다룰 수 없었던 다른 측면의 중세 정치사상을 보충하려는 의도였던 것 같다. 교황권주의에 대립적인 두 사람의 정치사상이 중심을 이루면서도 교황주권주의의 본질과 성격이 소개되고 있다. 결국 이 책은 두 정치사상가에 대한 분석이 주류를 이루지만 다양한 서양중세 정치사상의 전반을 포괄

적으로 고찰한다.

한편, 인상깊었던 점 가운데 하나는 제1장의 용어 해설이다. 지은이는 본문에서 사용한 용어들의 개념과 원어의 한국어 번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이해를 돕고 있다. 일부 용어에 대해서는 더욱 검토와 합의가 필요하겠지만 그에 대한 분명한 주장과 논리는 향후 학계에서 비중 있게 검토해 반영될 수 있는 근거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이 연구서는 서양중세 정치사상의 교과서자 지침서로서의 위치를 점유할 것이다. ■

장준철 교수는 전남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서양중세사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원광대 사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12, 13세기 교황현세권 연구> 등의 논문이 있다.

지은이는 이 책에서 전부 33개의 용어에 대한 해설을 달았다. 그 가운데 오늘날의 의미와 중세적 맥락에서의 뜻이 크게 다른 몇가지만 소개하고자 한다.

▲국가(civitas, regnum) : 오늘날 국가는 사회와는 분리돼 주로 '사회의 모든 정치적 조직'을 뜻한다. 그런데 중세적 국가관은 다분히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그리스도교적 국가 인식에 기초한 인간의 원죄와 탐욕으로 초래된 잠정적 인간공동체다.

▲내셔널리즘(nationalism) : 중세의 지배적 정치 문화였던 세계주의, 보편주의와 구별되는 새로운 경향, 즉 왕권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중적 군주정부의 성장을 의미한다.

▲정신사(spiritualia)와 현세사(temporalia) : 이들의 구분은 인간이 영혼과 육체로 구성된다는 관념에서 비롯됐다. 이는 교권과 성직자가 정신사의 관리를 그리고 속권이 물질적 현세사의 관리를 담당한다는 중세의 이원적 정치 구조의 토대가 됐다.

▲주의주의(voluntarism) : 오늘날 주의주의는 지성을 의지에 굴복시키는 그릇된 생각으로 교조주의, 자민족 우월주의, 경제지상주의를 포괄하는 용어다. 반면 중세 주의주의는 인간의 주관적 내면적 행위로서의 본성적 욕구 내지 바라는 바 그 자체를 주로 함의했다. 중세 말의 정치적 주의주의는 사회를 움직이는 동인 내지 추동력이 구성원들의 의지적 요소라는 자각에서 비롯됐다.

《위험한 여성》은 1997년 미국에서 먼저 출간됐다. 동시출간을 바랬던 필자들의 소망에도 이 책이 한국어로 번역되기까지 5년의 시차가 있었다. 이 5년 동안 이 책은 영어원문이라는 부담이 있음에도 여성학과 인권에 관심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불법제본 목록 1호로, 필독서로 읽혔다. 서구 이론의 단순한 수입으로 식민과 분단이라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설명해내기 어려운 현실에서 이 책은 미국으로 건너간 제1세대 교포 여성학자들이 내부자면서 동시에 외부자인 독특한 위치에서 한국사회를 분석해 건네준 소중한 선물이었던 셈이다.

민족주의 그늘에 가려 은폐돼온 여성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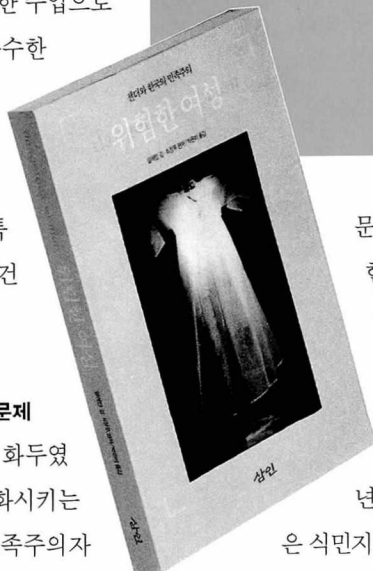
이 책은 1980년대 사회 운동의 화두였던 민족주의가 한국사회를 민주화시키는데는 실패했다고 전제하면서 민족주의자들을 바짝 긴장시키는 주장들을 담았다. 이 책에서 가장 급진적인 언어를 구사하는 학자 가운데 한명인 최정무는 일본과 미국에 의한 식민화에 대항하기 위해 제국주의와 냉전체제에 반대하는 운동을 조직화했던 식민지 지식인들의 민족주의 운동과, 타민족을 침범하는 것을 근대화 혹은 문명화라고 부르는 오만을 떨어진 서구열강의 자민족 중심주의가 만나 식민지 여성들을 어떻게 타자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일제강점기는 성별, 계급 등으로 분리돼 있었던 집단 내 차이를 무화시키고 식민지 국민으로서의 집단성을 강조하는 기초적인 토양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의 문제가 전체 국민의 문제에 가려졌던 것은 물론이다.

〈민족의 상징, 양공주〉를 쓴 김현숙은 기지촌 여성활동가인 김연자씨의 전국순회토론회에 온 한국 민족주의 활동가들이 김연자씨의 경험을 듣기보다는 미국의 잘못을 비난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태도를 지적하면서 이런 태도가 김연자씨를 포함한 기지촌 여성들을 침묵시키는 데 일조한다고 비판한다. 〈한국인 '군 위안부' 를 기억한다는 것〉에서 양현아는 민족주의적 감상주의가 군 위안부

《위험한 여성》

여성주의 입장에서 한국 민족주의의 한계와 문제점 분석해

일레인 H. 김 외 지음 | 박은미 옮김
삼인/A5신/404면/15,000원



문제를 일본인 남성과 한국인 남성 간의 자존심 싸움으로 만들었다는 점을 분석하면서 한국인 '군 위안부들'을 식민 이후 50년간 침묵하게 했던 것은 식민지 남성의 공모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폭로한다.

남성 중심적 한국사회 비판해

이렇게 이 책의 문제제기는 식민지 이후에서 출발하지만 남성 중심적 민족역사에 대한 비판의식은 고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문승숙은 〈민족공동체 만들기〉에서 신화에 불과했던 단군설화가 한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해주는 적통 역사가 되면서 남성 중심적 역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추적한다. 여기서 인간 이전의 존재인 웅녀는 단군을 낳는 민족자궁의 역할만을 부여받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한국남성들에게 열등감과 적개심을 심어주는 나라인 동시에 경쟁적 극복의 대상이다. 미국과 일본의 남성과 한국남성 사이에서 끊임없이 희생자로, 때론 창녀로 불려다녔던 한국여성들의 존재는 미국에서 공부한 한국계 여성학자들에 의해 생존자로, 운동가로, 모순을 체현하고 있는 행위자로 다시 불려졌다. 민족주의자들은 이들을 속편한 외부자라고 보고 싶어할지 모르지만 이들의 부름은 태평양 연안 고속도로에서 미군 앞에서 옷깃을 높이고 자세를 꼳꼳이 하는 자신들 다시 불려오면서 시작됐다. 이것이 이들의 성

권김현영 | 여성사 연구모임 '길밖세상' 회원

찰을 속편한 외부자의 것으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다. ■

권김현영씨는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여성사 연구모임 길밖세상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20세기 여성사건사》(공저), 《페니스파시즘》(공저) 등이 있다.

'젠더와 한국의 민족주의'란 부제를 단 이 책은 여성학과 연관된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여성 연구자들의 논문집이다. 11명의 지은이들은 한국이 아닌 미국 사회에서 생활하는 한국인 혹은 한국계 미국인 여성 연구자들로서, 사회학, 문학 비평, 사진, 단편영화 비평, 다큐멘터리 및 인터뷰 등 다양한 장르에 걸친 탐구 작업을 보여준다.

지은이들의 분야는 조금씩 다르지만 모든 논문의 일관된 주제는 다층적으로 성별 구조화된 식민주의와 그 유산인 '신식민주의'라는 맥락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책은 분단 한국의 여성들이 대면해왔고 여전히 직면하고 있는 성/인종 차별적 담론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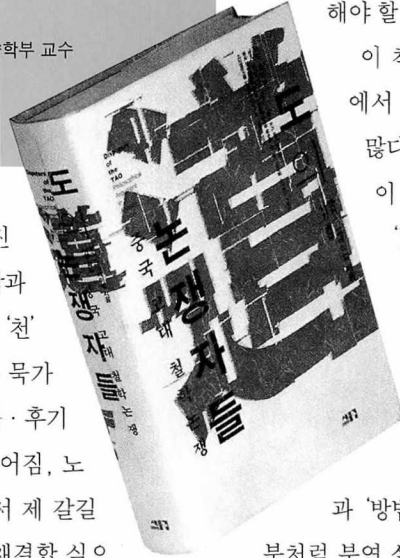
지은이들은 또한 여성주의와 민족주의는 근대성의 모순이 낳은 산물이라고 규정하면서 근대성의 프로젝트인 여성 운동은 형제애로 충만한 공동체를 상상하는 민족주의와 상충한다고 말한다. 민족주의는 개인적인 차이를 인정하는 자유주의적이고 민주적인 관념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구체제(ancien regime)의 계급적 위계질서를 재구성해왔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민족-국가를 단일화하려는 이데올로기를 위해 성 과 인종을 차별하는 데 이용돼온 것이 바로 이 자유주의적 민족주의의 개념이라고 강조한다.

《도의 논쟁자들》

고대 중국철학사를 역동적인 상호 논변으로 포착해

앤저스 그레이엄 지음 | 나 성 옮김
새물결/A5신/744면/33,000원

신정근 | 성균관대 유학·동양학부 교수



한신대 나 성 교수의 4년여에 걸친 공들임 끝에 《도의 논쟁자들》(원제: Disputers of the Tao, 1989)이 독자 곁에 찾아왔다. 이 책은 8월 10~11일, 이틀에 걸쳐 다섯개 중앙 일간지에서 9,732자의 소개를 받을 정도로 화려하게 등장했다. 원서는 그레이엄(1919~1991)이 논문과 소책자 형식으로 발표한 글을 만년에 한곳에 묶은 성과물이다. 지은이는 런던대학 동양·아프리카학 연구소에서 일본어 학점을 인정받지 못한 우연이 계기가 돼 중국어와 인연을 맺은 뒤 중국학 분야의 심연에 이르렀다. 딸도 아버지의 발자취를 밟고 있다니 '그레이엄'과 중국학은 숙연인 모양이다.

‘하늘’과 ‘사람’을 축으로 고대 철학논쟁 분석해

책이름 자체는 자극성이 약하지만 도발성은 강하다. ‘도’ 하면 곧 ‘도가’를 연상하는 사람에게 ‘도’의 논쟁자들은 도가 ‘집안’을 넘어 서 춘추·전국 ‘시대’를 포괄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일으킨다. 또 ‘제자백가’ 하면 공자와 노자 등을 떠올리는 사람에게 도의 ‘논쟁자들’은 대가들의 일장 훈시를 벗어나 쌍방향의 진지한 대화가 있었을까 하는 우려를 낳는다. 지은이는 이런 의구심과 우려를 의식한 듯 표지를, 갓을 벗은 두 남자가 ‘道’를 두고 흥분한 채 말하고 느긋하게 듣는 그림으로 장식하고 있다.

반면 역서에서는 ‘道’가 삼면을 압도하고 있어 ‘논쟁’은 슬그머니 사라지고 있다. 즉 남자가 도를 논쟁하는 게 아니라 도가 무인지경에서 말하고 있다. 책 속에서 지은이는 ‘하늘’과 ‘사람’의 축을 세워놓고 고대 중국철학의

광활한 세계를 중횡무진하고 있다. 지은이는 남과 여의 인연에 착상한 듯 ‘천’과 ‘인’ 사이를 공자·묵가 등에서 허물어짐, 맹자·후기 묵가·장자 등에서 헤어짐, 노자·순자·법가 등에서 제 갈길 찾기, 음양가 등에서 재결합 식으로 다루고 있다. 이 도식은 진부할지도 모르겠지만 고대 철학이 역사의 무대에 ‘사람의 등장’이라는 계기와 맞물려 있으므로 여전히 유효하다.

이 책은 도식의 유효성만이 아니라 내용의 계몽성도 갖추고 있다. 중국철학사, 특히 고대철학사는 공자의 각주가 아니다. 한 가지 예만 들더라도 ‘공자에서 맹자로’의 전개는 양주학파의 “방해와 손상을 받지 않으면 완수될 수 있는 삶의 과정”으로 ‘생’(生)/‘성’(性)의 발견을 빠뜨리면 설명되지 않는다. 제자백가의 문헌 하나만 보면 논쟁을 찾기 어렵지만 지은이는 엄밀한 문헌 비판과 상호 대조를 통해 고대 철학사를 고립된 각개 약진이 아니라 역동적인 상호 논변으로 포착해내고 있다.

보완돼야 할 번역도 있어 아쉬워

우리는 《논어》 등의 서명이나 ‘인’(仁), ‘덕’(德), ‘겸애’(兼愛), ‘성’(性) 등 주요 개념의 의미를 이해했다고 가정하고, 이것을 현대 한국어로 번역하는 일에 무관심하다. 반면 지은이는 ‘분류된 말들’(Assorted Sayings), ‘고귀함’(being noble), ‘권능’(힘-유효성, potency), ‘개개인의 고려’(concern for

everyone)처럼 서양 철학 용어와의 대결 의식 속에서 영어로 번역하고 있다. 앞으로 학계는 합리주의 대 ‘반’합리주의 도식, 후기 묵가의 선험성(先, a priori)과 관념(意, idea) 세계의 주장, 오도됐거나 잊혀진 양주·송견·혜시·공손룡의 발굴에 철저히 대응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

이 책은 자세함과 꼼꼼함의 측면에서 보면 급히 보완돼야 할 곳이 많다. 예컨대 ‘가의’라는 한 인물이 본문과 찾아보기에 ‘賈宜’와 ‘賈誼’라는 두 인물로 나뉘어 있다. ‘시’(詩) 등은 선진시대에 그 자체로 서명이었는데 ‘시경’으로 돼 있다. 그 외에도 라일(G. Ryle)의 ‘사실적 삶’(knowing That)과 ‘방법적 삶’(knowing How)의 구분처럼 부연 설명이 필요한 듯하나 별다른 언급이 없다는 부분도 종종 눈에 띈다. ■

신정근 교수는 현재 성균관대 유학·동양학부 중국철학 전공교수로 재직중이다. 저서로 《한국유학과 리기철학》(공저) 등이 있고, 《반논어》를 공역했다.

다음은 서양 존재론과 중국 존재론 사이의 관계에 대한 지은이의 성찰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존재와 본질에 대한 서구의 혼동은 이것을 중국어 속에다 번역하려는 좌절된 노력 속에 필연적으로 노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종의 X는 그 절반이 Y이고, 그리고 X와 비교할 때 크고 무거운 것은 Y와의 비교에서는 작고 가벼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을 존재(being) 혹은 비존재(not being), 즉 둘 다 존재이거나 또는 둘 다 아니라고 생각할 수 없다”고 플라톤이 주장할 때, 이 논거에는 본질의 물음에서 존재의 물음으로서의 전이의 단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뒤에 가서 발생하는 아리스토텔레스와 아랍인들에서와 같은 양자의 구분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오류는 중국어에서 재생될 수 없다. 인용된 문장에 대한 오해(吳獻書)의 중국어 번역에 있어, 존재의 물음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발생한 사물의 존재와 그 속성에 대한 회의가 제기한 진일보의 회의로서 방향이 바뀌어져야만 한다.”

1961년 출간된 네이글의 《과학의 구조》는 과학철학 분야의 고전적 문헌 가운데 하나다. 이 책에서 네이글은 20세기 초반부터 1950년 말에 이르기까지 과학철학의 지배적 입장이었던 논리적 경험주의의 과학철학을 포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물론 네이글이 이 책을 쓸 당시, 논리적 경험주의는 많은 공격을 받아서 이미 힘을 잃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과학철학자들에게 논리적 경험주의의 입장을 다시 설득하기보다는, 좀더 광범위한 일반 독자들에게 과학적 활동의 본성을 이해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어떤 철학적 입장을 취하더라도, 인간의 삶에 미치는 과학의 막대한 힘을 부인할 수 없는 한, 과학에 대한 철학적 분석은 필연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환원으로 과학의 진보 설명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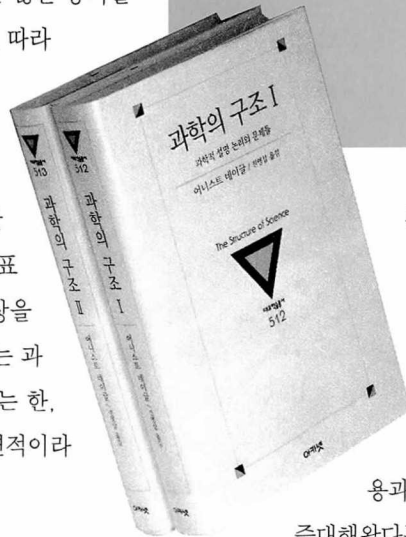
이 책에서 지은이가 특별히 관심을 기울인 문제는 과학적 설명과 환원의 문제다. 과학적 설명이 과학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문제라면, 환원은 과학의 진보를 이해하는 데 열쇠가 되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과학적 설명에 대한 네이글의 견해는 험펠과 오픈하임이 제시한 연역-법칙론적 설명 모델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이 책에서 그가 설명의 모델을 자연과학의 좀더 광범위한 영역과 사회과학에까지 적용하고 있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

과학철학에서 인정될 만한 네이글의 업적은 역시 환원의 문제에서 찾을 수 있다. 새로운 이론이 이전의 이론을 포섭하고 흡수하는 방식을 과학철학에서는 환원이라고 부른다. 네이글의 모델에 따르면 과학이론 간의 환원이란 환원되는 이론이 환원하는 이론으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됨으로써 전자가 후자에 의해서 설명되는 것을 말한다. 과학자들이 기존의 잘 확립되고 수락된 이론들을 환원하고 흡수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을 발견했을 때, 과학에서 객관적이고 누적적인 진보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이 모델에 따르면 새로운 이

《과학의 구조(전2권)》

논리적 경험주의의 과학철학 집약해

어니스트 네이글 지음 | 전영삼 옮김
아카넷/A5신/530면 내외/25,000원 내외



론들은 그것들이 흡수한 이전의 모든 이론들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과학은 경험적 내용과 설명적 힘이 꾸준히 증대해왔다는 것이다. 19세기의

고전적 열역학이 통계역학에 흡수되고, 20세기의 분자생물학이 왓슨과 클릭가 DNA 구조를 발견함으로써 고전적 유전학의 대부분을 통합한 것이 이런 진보의 예다.

전체론적 테제에 의해 비판받기도

그러나 네이글의 환원 모델은 심각한 비판에 직면하고 만다. 그 비판자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폴 페이어아벤트다. 페이어아벤트의 비판은 이론적 용어의 의미가 그것을 포함하는 이론에 항상 의존한다는 전체론적 테제에 입각한 것이다. 네이글의 환원 모델은 환원하는 이론과 환원되는 이론들 가운데 등장하는 공통된 용어의 의미가 불변한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 그런데 페이어아벤트에 따르면 환원하는 이론과 환원되는 이론들 가운데 공통되는 용어들도 이론의 변화에 따라서 의미의 변화를 겪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전 역학과 상대론적 역학에서 '질량'이 의미하는 바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한 이론적 용어의 의미는 그 이론 전체의 맥락 속에서만 규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철학자들, 심지어 의미에 관한 페이어아벤트의 견해를 비판하는 사람들조차도, 환

정병훈 | 경상대 철학과 교수

원에 대한 네이글의 설명에는 상당한 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그들은 이론들 간의 환원의 본성을 이해하려는 프로젝트는 여전히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최근 과학철학계 일각에서 논리적 경험주의의 과학철학을 새롭게 평가하고 조명하려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비춰볼 때, 이 번역서의 출간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논리적 경험주의 과학철학에 관심이 있는 전문 철학인들이나, 과학의 본성을 이해하고자 하는 자연과학자, 사회과학자, 그리고 일반인들에게 이 책이 커다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믿는다. 특히 역자의 깔끔한 번역과 꼼꼼하게 붙여놓은 역자주는 이 책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게 할 것이다. 원서의 분량이 600페이지에 이른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역자의 노고가 얼마가 컸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

정병훈 교수는 연세대 대학원을 졸업(철학박사)하고 일본 국제기독교 대학 대학원 비교문화분과 및 캐나다 웨스턴 온타리오 대학 대학원 철학과 과학철학 특별과정을 공부했다. 미국 위스컨신-매디슨 대학 철학과 Honorary Fellow를 역임했고 현재 경상대 철학과 교수다. 지은 책으로 《과학과 형이상학》(공저), 옮긴 책으로 《방법에의 도전》(계몽시대의 철학) 등이 있다.

과학이 상식에 비해 우월한 이유는 무엇일까? 네이글은 과학이 가진 '체계적이며 신뢰성 있는 설명' 때문이라고 말한다. 즉 오랜 인류 역사에서 세계를 파악하려는 노력의 한 산물로서 상식이 존중받을 측면이 있다 할지라도, 설명의 부재라는 심각한 약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폭넓은 과학의 영역에서 다양한 설명방식과 그에 따른 문제를 분석해 보여 준다.